

코로나19 지역경제 강타... 광주·전남 수출 역대 최악 우려

기아차 광주공장 14일 간 차량 1만여 대 생산 차질
냉장고·석유제품 등도 타격

코로나19 여파가 지역 경제를 강타하면서 이번 달 광주·전남지역 수출 실적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염병이 확산하면 광주·전남의 대표 수출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올 2월 지역 수출 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은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셀토스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난 달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설 연휴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수출이 감소했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최종 지정된 가운데 24일 오후 기중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재개했지만, 약 1만대의 차량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뿐 아니라 냉장고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의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이 '광전 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냉장고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1%였다. 하지만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시기에

는 -8.4%로 14%포인트 감소하는 등 감염병이 광주 냉장고 수출에 타격을 줬다.

지난달 광주지역 냉장고 수출이 중국·일본과의 경쟁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39.6%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이밖에 감염병 시기 전남지역 석유제품과 철강판 수출액 증가율도 각각 -23.4%, -3.6%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이 광주 수출 1위·3위 품목인 자동차·냉장고를 비롯해 전남 수출 1위·3위인 석유제품과 철강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가 덮친 2월 지역 수출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중국 수출 비중이 광주 7.6%, 전남 27.5%에 달하는 만큼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확진자, 광주서 신도 100명·시민 150여명과 접촉

코로나19 이번주가 중대 고비

지난 16일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신도수가 최소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6·7·13·15·16면>
확진자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대형마트와 식당, 커피숍, 동물원 등 광주 곳곳을 누비며 신천지 신도 외에도 150여명에

이르는 시민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돼 자칫 추가 감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파악한 신천지 광주교회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명이며, 이들과 접촉한 신천지 신도는 100명이다. 또 신천지 관련 확진자 7명과 접촉해 격리된 시민은 160명으로, 신천지 신도 격리자(100명)를 포함하면 총 260명이자가 격리됐다.

광주시는 신천지 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날 오후부터 신천지 백운교육센터(공부방) 등에 대한 CC-TV 확인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역학조사팀은 23일 신천지 주일교육센터 등 2곳을 방문했지만, CC-TV고장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문이 닫혀 있어 작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 봉쇄망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강립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

리핑을 갖고 "지역전파가 발생했고, 지역 감염 사태도 확산돼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라며 "최대한 봉쇄전략을 통해 전국 전파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833명으로 늘었다. 또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국내 8번째 사망자다.

알립니다
3·1 마라톤 대회 4월 5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위해
3월 1일 → 4월 5일(일)로

2020년 3월 1일(일) 예정이었던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참가선수 및 가족, 대회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년 4월 5일(일)로 대회일자를 변경,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기된 대회 일정과 맞지 않는 참가자 분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수수료 공제없이 참가비 전액을 환불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환불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2일(월)까지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환불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며, 연기된 일정에 맞춰 행사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달림이 여러분들과 대회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남 3당 합당 선언 '민생당' 출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당이 24일 '민생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신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졌다.

신당 당명으로 바른미래당에서는 '제3시대', 대안신당은 '민주연합', 평화당에서는 '민생당'을 각각 제안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투표를 통해 '민생당'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졌다.

민생당 출범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정 정도 판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민생당이 옛 국민의당 호남 진영이 다시 뭉치는 모습에 그친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극적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3당은 각당 지도부와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에서 '3당 수인 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당선언문에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날 3당은 각당 지도부와 통합추진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에서 '3당 수인 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당선언문에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츰츰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